

특별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면하는 불평등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개선점

김민솔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대외협력부 매니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불평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와 각 도시의 기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점을 찾고,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도시의 개선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Covid-19 확산 직전인 2019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1000명 이상을 유지해 왔고, 북한을 다룬 영상물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인식은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2년 5월 통일 평화 연구원 최은영 선임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포용적으로 대하는가에 대해서는 2015년 '매우 포용적이다'라는 응답이 31.1%에서 2019년 22.7%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을 문제·비난의 대상(44.7%), 경계의 대상(20.7%)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총 65.4%로 나타나며 동정·구호의 대상(24.1%), 포용·인정의 대상(10.5%)으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의 경우도 부정적 정서가 77.0%, 동정적 정서가 21.0%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통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의 2018년 실태조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꼴이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자면, 2013년 1월 21일 <동아일보>가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이라는 부제를 단 '탈북자 1만 명 정보 통째로 북에 넘긴 정황'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1면에 내보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으로 주목받던 유우성 씨로, 이 기사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이 유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보도하면서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잠재적 간첩으로 내몰리는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또한 유 씨 사건 보도에서는 끊임없이 '거짓말', '위조', '속여', '농락', '안보 구멍', '방치', '유출', '불안', '확산', '협박', '신상 노출', '인질', '강요', '지령', '포섭'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데,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또는 범죄 혐의 보도가 집합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사회 전체의 저질성, 범죄성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흔히 듣는 편견과 비난이 바로 '세금 도둑'이라는 말이다. 남북 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세금 떼먹으려고 한국에 왔느냐", "돌아가라" 등 남한 출신 주민들의 불편한 심경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북한이탈주민은 소외감과 불편감, 위축감을 느꼈고, 반면에 남한 출신 국민 입장에선 별 노력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 남한의 저소득층보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북한이탈주

민에게서 역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이의 근거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 ‘2019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1년 59.7%에서 2019년 36.2%로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향한 특징적인 편견 또한 존재한다. ‘남남북녀’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북한 출신 여성들은 예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북한 출신 여성들은 문란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12월 25일 정확한 근거 없이 “탈북여성 상당수가 성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한 종편 채널 뉴스 등을 언급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고 이 같은 권고안은 6개월간 지상파·종편 방송의 저녁 뉴스,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등 총 35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북한 여성에 대한 성적인 편견이 방송에 퍼져있었다는 걸 보여줬다.

또한 런던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단체 ‘코리아 퓨처 이니셔티브(Korea Future Initiative)’는 ‘성노예: 북한 여성의 중국 내 매춘과 사이버섹스, 강제결혼’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의 약 60%가 성매매 업소로 팔려 가고 있다고 밝혔고, 따라서 북한이탈 여성 성폭행 피해 유형도 음란 전화(26%), 성추행(20%), 성희롱(18%), 스토킹(17%), 성기노출(17%), 강간미수(15%), 강간(11%)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대응 방식은 자리에서 도망치거나(15%), 당하고 있거나(13%), 무조건 빌고 애원하는(11%) 식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심각성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편견이 존재하는데, “탈북 여성들에게는 한국 사회의 옛 여인상이 남아 있어 가정에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외국 여성보다 언어나 문화면에서 이질감이 없고 2세의 혼혈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는 한 북한이탈 여성 전문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에서 이러한 편견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북한이탈 여성 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 여성들도 전통적인 이미지로부터 많이 변화했다”라면서 “그렇게 홍보해야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정관념을 가진 남성을 만난다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결혼이 깨지는 일이 생기기 십상이어서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은 현실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이 현대사회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앞서 말한 편견에서 이어진 여성 인권 문제이다. 북한이탈 여성들은 술집이나 티켓다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엔 몇 년 전부터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당수는 북한이탈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다.

2015년 함경북도 무안에서 탈북했다는 B씨는 “하나원을 퇴소할 때 정부에서 정착금 400만 원을 줬지만 브로커한테 돈을 모두 빼앗겼다”며 “연고도 없고, 자립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 성매매를 벌인다.”라고 토로했다. 또, 함경북도 회령 출신 C씨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호소하며 북한이탈 여성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음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문제인데, 한 해 10여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시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월북 시도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둘러싼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통일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사건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가 각각 26.8%, 25.8%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남한 거주민들에 비해 노후 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로커 비용과 대북 송금, 과도한 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이 그 원인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절반이 약간 넘는 54.6%에 그쳤던 반면에 생계급여 수급률은 25.3%에 달했다. 북한이탈주민 2명 가운데 1명만 일하고, 4명 가운데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탈북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8%가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인관계 및 언어소통에 미숙하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흔하게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체제 방식을 볼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같이 극소수의 집단이 신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에 수십 년간 휘둘리다 보니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항상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평등한 사회와는 정반대 된 사회에서 늘 특정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리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판단된다.

위의 영향은 결국 가정 내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런 트라우마가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

의심으로 변질하게 된다. 자기 보호본능으로 인해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조금만 상대가 예상치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피해 도망가거나 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처하면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게 되고, 전후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남한 주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경제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취업 문제, 노동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우 주위의 경험담을 통해서 취업의 문 입구에서부터 차단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업주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우선적인 결격 사항으로는 보는 요소가 언어의 이질성이며,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취업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언어적인 측면 외에 다음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기간이 짧은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요소가 부족하므로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나머지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꼬리표와 낮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에서 취업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막노동 등 단순 노무직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직장 내 무시와 편견으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억양 이질감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한국 실정을 알 수 없기에 직장 내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임금, 인권 측면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직률은 45%나 되고, 한 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비율은 32%에 불과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이유와 편견과 차별만 떠올릴 수 있는데, 질병과 건강 문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독일 콘스탄츠대·빌레펠트대 연구진도 지난 2019년 국제학술지 '분쟁과 건강'(Conflict and Health)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정착한 13~23세의 탈북 청소년과 청년 64명을 지난 3년 동안 면담하며 조사한 결과 우울증 비율이 45.3%에서 3년 뒤 59.4%로 상당히 증가했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외감이라든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

스, 가장 큰 요인은 사고·폭행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의 '트라우마 사건'과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본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 전염병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예방접종 미비나 보건의로 체계 붕괴 등으로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탈북자 1천75명 대상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탈북자 중 77%가 디프테리아와 풍진, 64%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53%가 홍역(제2군 전염병)에 각각 감염된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고, 기생충 감염률은 44.3%로 3.7%인 남한에 비해 12배, 매독 유병률은 1.6%로 8배, B형 간염 유병률도 4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탈 여성들의 건강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북한이탈 여성들의 80~90%가 질염, 부인과 진료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부인과 질환 증상이 있어도 의사소통과 의료비 등으로 진료받지 못하고 입국했고, 검사 결과, 대부분이 여성 생식계 질환 유증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여성은 유산이나 낙태 후 자가 치료 경험이 있고,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무상 의료체제가 붕괴하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장마당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됐기에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현대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며 악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부, 더 깊게 들어가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현재 어떤 정책과 개선책들로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 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개선 현황을 찾아본 결과, 모든 도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등 지역 적응을 위한 지원에 대한 보고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정은 2022년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변화가 일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적응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라도 보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은 신경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행사가 세계인권도시포럼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기존에 진행되던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현황을 알리고 싶어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을 위주로 글을 작성했다. 여러 지역 중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언급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5.18 행사에 북한이탈주민이 참가했다는 언급 또는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받는 지원과 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광주에서 주목해 볼 만한 행사는 2022년, 2023년 진행된 <광주 평화·통일 교육주간 오월에서 통일로> 행사로, 행사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봤을 때 2022년에는 북한 인권보다는 통일에 초점을 맞춰진 프로그램이 대

부분이었다면, 2023년에는 북한 인권 보고서 전시회, 북한 미술품 전시회 등 북한 문화와 인권의 비중을 늘린 유의미한 발전을 보였다. 2022년 행사에서는 통일 관련 교육, 전시회, 문화 행사 등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23년에는 8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022년에는 ‘남과 북의 문화 교류 북한 이야기’가, 2023년에는 ‘북한 인권 보고서 전시회’, ‘북한 미술품 전시회’, ‘평화통일 공감 체험 한마당’이 북한 문화를 알고,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프로그램 개수는 줄이되, 통일과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구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6년부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주관하여 평화통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남북문화 비교 먹거리 체험, 북한 영화 ‘신간역에서’ 상영, 북한 보건의료 체계 이해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사를 만들어 갔다.

또, 부산광역시에서는 2022년, 2023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도시문화 체험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해소 및 주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경제·생활·문화, 탈북경험담, 한반도 평화 등을 강연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생생 토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2년 부산 평화통일박람회에서는 통일 프로그램과 함께 북한 물품 전시,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시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대담 코너를 통해 북한에서의 생활 체험기와 남한 생활의 적응기 등 북한이탈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줬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간 가족결연식으로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9쌍 가족의 인연 맺었고, 2021년 전국 최초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를 지원한 이력이 있다. 앞의 사례들만 볼 때는 각 도시의 기관들에서 많고, 좋은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소수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통일 행사를 개최할 때 끼여 몇 개 하는 현상이 지배적이고, 그마저도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진정으로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러한 ‘끼워 팔기’식 행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인지도 의문이다.

대도시들의 북한이탈주민 개선 현황도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더 작은 도시들, 군 단위의 지역에서는 어떠하겠는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수에 비례해서 인식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하려는 정책을 계속 이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개선책을 만들 때,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완성된 결과물 먼저 내놓으려는 것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 등 그 원인에 대해 먼저 배우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 설명 없이, 스스로 동기를 가지지 않은 채로 주입식 프로그램과 교육부터 받는다면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적대감이 더 커지거나,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와 같은 의문, 다음 날에 바로 잊어버리는 무의미한 행동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통일 교육주간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교육주간 같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상황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생활은 어떤지, A부터 Z까지 낱낱이 알려주는 자리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대대적인 북한이탈주민 교육주간을 만든다면 물론 부담스럽고 반겨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통일 교육주간에 끼어서 천천히 교육의 양을 늘려나가거나, 특별 수업 시간 정도로 먼저 자리를 잡는 것도 좋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학생들이 있는 곳은 1년에 몇 번 정도의 특별 수업으로 틀에 박혀 있던 교육 과정에 새로움을 주어 특별함을 심고, 지루한 강연 방식이 아닌 스토리텔링, 북한 문화 체험 방식으로 다가가며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학교의 경우 북한 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에 관한 강의의 수를 늘려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경우의 폭을 늘려주는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법을 거친 후에,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북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 더욱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한다는 가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의 장도 자주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동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를 이루지 못한 행사였으니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선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처럼 보이고, 남한 출신 주민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남한 출신 주민이 만나 서로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서로의 과거를 보듬어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논의해 보는 방법도 의미 있을 것이다. 남한 출신 주민만이 무조건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라는 것이 아닌, 쌍방향 소통법을 지향한다. 또한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이 직접 한국의 생활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는 왜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 힘을 쏟으며 이해 못 할 수도 있고, 현실을 모른다며 타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인원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보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상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계속 꿈을 꿀 것이다.